서울市 가정상담소 사례분석

"가정불화 배우자不貞 가장많아"

학력높을수록 夫婦갈등 심각

우리나라가정들의 불화요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불화를 상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가족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서울시 산하 중앙、도봉、동작상담소등 3곳의 가정상담소가 지난 1년간 상담한 사례를 분석한 통계에서 밝혀졌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가정상담소가 의뢰받은 상담건수는 내방상담과 전화상담을 모두 합쳐 9천4백55건이며 그중 69·3%인 6천5백22명이 가정불화를 의논했다。

이들 상담자의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44·1%)그다음으로 40

상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상담한 사례가 전체 상담건수의 20·2%로 가장 많았고 부부간의 성격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화도 14·8%였다。

이밖에 자녀문제(12·9%)、고부갈등(8·5%)、처가나 친족과의 갈등(6·3%)도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아내가출 26·4%、배우자부정 16%순으로 상담한 반면 여성상담자의 경우는 배우자부정이 20·9%로 가장 높았고 고부및 친족과의 갈등이 다음순(16·3%)으로 나타나 남녀상담자간의 상담요인이 다소 달랐다。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60·9%로 중졸이하보다 월등이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상담을 의뢰하는

이혼사유「배우자不貞」44%

대법원 작년2萬1千쌍 분석

「아내부정」쪽이 더 많아

지난해 이혼한 부부가운데「배우자의 부정」때문에 갈라선 부부가 44%나 됐으며 20대와 30대가 전체 이혼부부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 2만1천6백98쌍중「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부부가 9천5백17쌍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여자의 부정」에 기인한 이혼이 4천9백7건으로「남자의부정」(4천6백10건)보다 많았다。

이는 지난90년의 경우 남자의 부정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4천9백28건으로 여자의 부정(4천6백62건)보다 많았던 점과 비교해 볼때 불과 1년사이에 그 양태가 뒤바뀐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배우자 부정」이외의 이혼사유는△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돌보지않은「악의의 유기」와「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각각 17% △3년이상 생사불명 7%△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 △기타 10% 등이었다。

이혼부부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전체의 45%(9천7백54쌍)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20대 30%(6천4백42쌍)△40대 21%(4천6백24쌍)△50대 4%(8백14쌍)의 순이었다。

또 60세이상은 52쌍、20세미만은 12쌍이었다。

이혼당시 자녀수를 보면 자녀가 2명인 상태에서 헤어진 부부가 전체의 40%를 차지했고△1명 34△3명 13%△무자녀 10△4명이상 2%등의 순로 나타났다。

이밖에 헤어질 당시 동거기간은 3~5년 %、2~3년 21%、1~년 15%、1년미만8% 으로 나타나 동거기간 5년미만인 상태에서 이한 부부가 전체의 67% 달했다。

동거기간 5~10년 사에 갈라선 부부는 19%、~20년을 살고 헤어진 부도 14%나 됐다。

한편 지난해 전국 법에 접수된 이혼소송사건 모두 2만7천6백97건로 90년의 2만6천8백건보다 3%가 증가한것로 나타났다。

92.8.25

이혼44% '배우자 부정'

동거 5년이내 67%…소송 해마다 증가

지난해 이혼한 부부들의 가장 중요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올 들어 처음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부정때문에 갈라선 부부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을 통해 이혼한 부부 2만1천6백98쌍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전체의 44%인 9천5백17쌍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 4천9백7건으로 남자의 부정이 이혼사유인 4천6백10건보다 많았다.

지난 90년에는 남자의 부정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4천9백28건으로 여자의 부정에 기인한 이혼(4천6백62건)보다 많았다.

이밖의 이혼사유로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돌보지 않은 유기행위가 17%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17% △3년 이상 생사불명 7%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 등의 순이었다.

· 이혼부부를 나이별로 보면 30대가 전체의 45%(9천7백54쌍)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가 30%(6천4백42쌍)로 20대와 30대가 전체 이혼부부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 당시의 동거기간은 3~5년이 23%, 2~3년이 21% 순으로 많았으며 동거기간이 5년이내인 상태에서 헤어진 부부가 전체의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헤어질 당시의 자녀수는 자녀가 2명 상태에서 이혼한 부부가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1명인 경우가 34% △3명 13% △무자녀 10%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사건은 모두 2만7천6백97건으로 전년의 2만6천8백69건보다 3%가량 늘어났으며 증가추세는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열 기자〉